

박지훈 개인전 <뜨거운 공기, 차가운 악기들>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18.06.3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김인선입니다. 몹시 더운 날에도 토크 참석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지훈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미국 Rutgers 뉴저지 주립대에서 MFA 와, New School Univ. of general studies에서 MA를 했습니다. 남서울 예술인마을이라는 사당역 근처의 작가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매년 오픈스튜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어서 학생들과도 교류가 많으십니다. 작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가의 나이를 듣고는 나이에 비해 젊은 감각이라 하며 많이들 놀라시더라구요. 굉장히 열심히 전시를 준비해주셔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박지훈**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틀을 잘못 지어가지고. 뜨거운 공기... 그래서인지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아티스트 토크를 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미술을 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작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행위,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 남의 작품 욕하는 것,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간의 교류하는 대화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제 작품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설명. 혹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는 작은 질문들에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다는 생각했어요. 질문지 나눠드린 것 조금 있다가 수거해서 보면서 일대일로 대응을 할게요. 이런 자리 와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하고 양전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도 심하고 해서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할게요.

제가 하는 작업은 주로 우리가 겪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혹은 장애들, 불편함을 주제로 다룹니다. 전면에 보이는 작업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보면 어떤 내용을 담는지 모르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작업인데, 제목은 <악보>입니다. 모양이 악보같아서 그렇게 지었지만 사실 모스 부호예요. 배가 조난당하면 조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게 단순하게 닷과 대시, 즉 점과 줄로 이뤄져 있죠. 그런 신호 체계인데, 표시된 내용은 SOS와 HELP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전시 전반을 아우르는 메시지가기도 하구요.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내뿜는 절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물소리가 계속 나는 작품 <결벽증을 가진 미술품>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줌마려워요. 계속 물소리 듣고 있으면 소변이 마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죠. 오래된 작업이에요. 1998년에 처음 했던 작업의 세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보시다시피 단순한 물의 순환, 그리고 중간에 간단한 정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과학적으로 완벽해요. 활성탄이라고 해서 물 필터에 쓰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물이 다시 나오다보니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과 순환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손은 씻어도 되는데 마실 정도는 아니죠.

작품 <나른한 오후>는 제가 작년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때 선보인 작품을 재제작 한거에

요. 개인적, 사적 경험에 관한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줘서 먹었던 약 중에 센 게 있어요. 그걸 먹고 있으면 마음이 매우 편해지고 정신이 멍해져요. 누워서 그냥 속된 말로 멍때린다고 하죠. '어~~'하고 있는 기분으로 누워 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윈드 터널이라고 해서 풍동 실험장에서 실제 쓰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자동차 표면을 연기가 나와서 지나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걸 가장 허접한 방식으로 재현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슬랙 해머는 망치예요. 건물 철거할 때 쓰는 망치잖아요. 재료가 좀 다르죠. 보통 망치는 철로 만든 헤드가 있게 마련인데 나무 대신에 투명한 자재로 대체돼 있고, 철이 아닌 황동,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게 폴리싱 되어 있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일종의 자화상 같은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쓸모는 없는. 저거는 절대 못쓰죠. 구동시키는 순간 망가질테니까요. 뒤에 빨간 불빛을 내보내는 작업은 저기에 쓰이는 램프는 적외선 램프예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쓰는 램프로 적외선 치료용이에요. 근데 그것은 핑계고, 예뻐 보일라고 사용한 거예요. 제가 색깔 바보예요. 색을 잘 활용을 못해요. 만드는 작품들이 대부분 흑백이에요. 금속 작업이 주가 돼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게 좀 콤플렉스예요. 미니멀하게 이뻐 보일라구.

또 작품 <M.T. (Membership Training)>은 와인 글라스 작업이에요. 저기에 쓴 액체는 에탄올 워셔액이에요. 자동차에 워셔액 넣잖아요. 예전에 그 가슴기 청소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메탄올 워셔액도 이슈가 되었었죠. 그 워셔액은 청색인데 그건 메탄올이고 인체에 해롭기에 요즘에 저걸로 대체해서 써요. 실제 초록색 에탄올은 어디 쓰이나면, 수평을 재는 수평자 보신 적 있나요? 그걸 들여다 보면 가운데 녹색 액체가 있죠. 그거예요. 오랫동안 수평계를 대치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왔는데, 그 시리즈 중 하나구요. 에탄올은 아시다시피 술의 재료이기도 하죠. 냄새를 맡아보면 술 냄새가 나요. 엠티가면 다들 술 많이 마시고 엉망진창 되어있는 상태, 그 가운데 하나의 통일된 수평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황동으로 된 막대기 두 개는 제목은 <왈츠>라고 지어놨는데. 왈츠는 사교를 위한 춤이긴 하지만, 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이 규격화된 공간에 제한돼 있을 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요. 둘이 타고 있으면 느끼는 불편한 감정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인티머시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불편한 감정, 느낌을 표현해보고자 했어요. 아무말도 안하는데도 불편하잖아요. 타인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요. 타인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에 관한거구요.

이빨이 나와있는 작업은 2013년에 발표한 작업을 다시 만들었어요. 아가리에 있는 이빨은 실제 상어 이빨이에요. 이베어로 플로리다에서 상어 낚시하는 사람에게 구매해서 받아서. 제가 만든 아가리에 조립을 해서 상어처럼 보이게 했어요. 밑에는 주기적으로 물이 떨어지게 장치를 만들었고 아래쪽의 뜨거운 플레이트에 닿아서 증발을 해요. 계속 소진되는 거죠. 액션과 리액션이 없는. 작동은 하지만 기능은 없는, 아무 결론도 없는 상태를 표현해보고자 했어요.

4점이죠. 작품 <수면장애>의 철판 작업은 자세히 보면 철판 두장을 붙인거예요. 표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땀질이 뒤에 되어있고, 그 땀질의 흔적이 앞면에 남은거예요. 미친듯이 손으로 갈아낸거예요. 기계로 한것이 아니라 코딱지가 새카매질 때까지 갈아내야 가능한 작업이에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관적으로 제가 느낌적 느낌으로 한 작업이지 언어적인 내용은 없어요. 제목도 지어놓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고, 큰 의미는 없어요.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상태의 결과물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고전적인 아이디어죠.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질문을 받아볼게요.

**관객** 저는 재료가 궁금한데, 세줄 갤러리 전시때부터 선생님 작업을 봤는데, 철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박지훈** 질문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재료를 좋아하는데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패브릭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이유지 논리적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냥 동물적인 느낌으로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작업도 정지됐어요. 제가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뭘 해야할지 모르겠었구요. 전에 내가 영상 작업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모니터 들여다보고만 있는게 정신 건강에 안좋다고 했어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구요. 멍하니 작업실에 앉아있었어요. 아무 생각없이 큰 공단에 가서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유연치 않게 철의 자재들을 파는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몇 개 사왔어요. 그때 그걸 자르고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때 수업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삼각형 작업들이예요. 그 찌꺼기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물리적 행위, 철을 갈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게 상당히 치료가 됐어요. 자기치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의사가 저한테 권했던 것이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 받으러가면 의사가 카운셀링 하잖아요. 말하고 대화하고. 그게 저에게는 도움이 안됐어요. 돈을 엄청 주는데.. 건방진 얘기긴 모르겠는데 말로 저를 설득을 못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날 솔직히 말했어요. 도움이 안된다구. 내가 해결 수 있는게 없고. 약 처방 해주는거랑,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는 게 도움이 될거래요. 이미 저는 결혼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저를 만져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하다가 처음에 시도한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거였어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신 스캐닝을 해서 스트레칭 하는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름에 한번씩 가서 했어요. 마사지도 받아보구요. 오일 마사지도 해보고. 이거저거 해보는 데 재미난건 뭐냐면 제가 치과를 무서워 해요. 그런데 담배 피다보니 스케일링을 해야돼요. 제가 치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데, 그건 의사가 하는게 아니라 보조 간호사이신 젊은 분들이 해주잖아요. 마치 안기듯이 감싸진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아프면서 동시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약간 변태같은거죠. 매저키스트 같은 거긴 한데, 스케일링 받는 그 순간에 극단적으로 다른 감정을 느껴요. 그게 저 작업의 모티브이기도 해요. 만져지는 사람으로의 내가 아니라 물리적 물질을 내가 만지는 사람 주체로서의 나를 경험하면서 반대 급부적인 구도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힐링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새삼스럽게 만난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철은.

**관객** 왜 재료를 여쭙봤냐면, 작품 자체가 가진 메시지도 항상 되게 감성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를 되게 애써 감추려는 재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지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자기 작업에 대해 말하는 게 약간 연애하는 것과 비슷해요. 좋아하는 연인에게 너가 매일 좋아 라고만 말할 수 없잖아요. 경상도 남자 같은

무뚝뚝하지만 툭툭 소통을 하는 건데요. 굳이 어떤 상태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게 닭살 돋아요.

**관객** 이해가 되네요.

**박지훈** 철이라는 게 또 뭐가 있냐하면, 약간 원시적인 재료잖아요. 철이라는 물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핵자간결합에너지가 제일 크면서 지구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물질이면서 많고, 또 인류가 오래동안 저걸 이용해서 사용해왔고 해서 다른 재료와는 다른 원시적 마력이 있어요.

**관객** 전시 제목을 정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지.

**박지훈** 에피소드 있죠. 저는 이 전까지는 전시를 준비할 때 사실은 별로 소통을 안 했어요. 전시 공간이 마련되고 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사실은 이전과 태도가 달랐던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했으면 되게 아주 구렸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이거를 약간씩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의 이니셔티브를 의심하게 되면서 김인선 선생님과 이런 저런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 작업실에 있는 멤버들끼리 모여서 우연히 밥을 먹는데 그 때 심지어 투표도 해봤어요. 여러 명의 생각이 반영된 타이틀이에요. 처음에 생각한것과는 전혀 달라요. 잘못하면 제목이 '뜨거운 숨'이 될 수도 있었을거예요. 너무 야하다. 에로영화 같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잘 정제된 상태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약기라는 거는 제가 좀 많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약기라고 살짝 언어의 속임수, 대상을 돌려버림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어봤어요. 공기는 감정을 말하는 거고, 약기는 개별적 오브제를 말하는 거구요.

**관객** 이번 전시에서는 소통을 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박지훈** 계기라기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근거없이 오만한 건 아닌가. 뭘 믿고 오만하지 그런 생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태도를 바꿔보려는 고민을 하기도 했구요. 전시공간이라는 장치와 작가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에 좋은 전시공간도 많지만, 많은 곳들이 소위 소유 운영 경영하는 분들이 좀 달라요. 스타일들이 되게 좋게 얘기하면, 작가를 바라보는 태도. 필요로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마인드로 접근하는 불들이 다수예요. 쉽게 말하면 상업 갤러리로 예를 들면, 아직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 연륜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점을 보게 되거든요. 너무 시간을 짧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작가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고 당장 이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전시들도 많았어요. 제가 전시했던 전시장들은 많이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 갤러리들과 전시하다보면 소통을 안 하게 돼요. 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봐야 도움도 안되고, 흔들리게 되고, 휘둘리게 되니까요. 고의적으로 소통을 안했던 거예요.

**김인선** 조각을 하시잖아요. 3차원인데도 조각같지 않기도 해요. 납작하거나 선적이거나. 최대한 가느다란 선을 만들어서 부조를 만들거나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만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확 더 길어도 될 것 같은데 딱 필요한 만큼만 쓴다든가. 공간을 최소한으로 쓰는 느낌.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각은 공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박지훈** 여기에는 저의 미술이라는 형식을 바라보는 아카데미한 태도와 실용적 태도가 같이 물려있어요. 소위 조소과를 나온 사람들은 이상한 강박을 갖게 돼요. 3차원에 대한 강박이죠. 그걸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조각이 갖춰야하는 형식이라는 것들. 그걸 책으로 쓰려면 한 권도 넘겠지만요. 저도 조소과를 나와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100프로 떨쳐낸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큰 작업들 보면 그런 걸 존경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 작업 앞에서는 나도 이런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들이요. 실용적인 고민은 뭐냐 하면, 제가 가진 작업 공간의 특성이기도 해요. 크지 않다보니까 여기 있는 작업은 모두 분해가 돼요. 그걸 다 분해해서 쌓아두거든요. 안 그러면 공간이 감당이 안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실용적 이유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그런 고민을 먼저 하게 돼요.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나 크기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이들을 내가 보관할 수 있을까? 절대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보관은 해야 하고. 아무리 상업적 가치가 없다 해도, 전시 종료 후에 버릴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식처럼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항상 적재해놓아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선배,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왜 작업이 조각스럽지가 않냐는 비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반항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이죠.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요. 원초적으로. massive 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게 DNA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작업. 제가 싫어하는 게 크고 무거운 것들이에요.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누가 와서 들어달라고 해서 갔는데 들다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어요.

**관객** 작업 제목은 어떻게 짓나요?

**박지훈** 제가 그렇게 문학적인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작가들을 통해서 귀감이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좋은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 굉장히 문장의 구조 같은 데미언 허스트 같은 경우, 아니면 매우 간결한 명사형의 제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선배 작가나 현존하는 작가들이 제목을 잘 지어냈을 때 제가 감동해요. 그걸 나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단순한 이유예요. 특별한 전술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품 제목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관객과 작품 사이를 아주 기분 좋게 묘한 거리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되는거죠. 알 것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해되기도, 안되기도 하는 그런 거리감이요.

**관객** 어떤 작품 제목이 가장 맘에 들었나요?박지훈 어려운 질문이네요. 민망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것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통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게 아우른다고 치면

이 작업을 <악보>라고 지은 것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 취향이 확 반영돼 있는 제목을 짓는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작전이 성공했다고 할까요. 여기에 내가 작품 제목을 지은 전술과 효과 대비 그게 가장 좋은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상어 아가리가 있는 저 작품의 제목 같은 경우는 개인취향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건 별로 강추는 아닙니다.

**관객**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엠티>라는 작품을 보면 초록색 물을 붓고 각 수면의 높이를 일부러 맞추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한 의미를 물어봐도 될까요?

**박지훈** 의미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은유라고 하죠. 무질서함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적인 평균율.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반영돼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이건. 여러 명이 있는 집단. 공적이든 사적이든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일요일 교회를 가면 다 다른 개인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평균율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게 되죠. 제목을 <엠티>라고 지은 것도 장난반 진담반으로 한 건데. 저는 예전부터 엠티가서 술먹는걸 좋아하긴 했죠. 또 하나는 대학생이 엠티가는 행위가 뭐지?하는 고민도 했어요. 엠티가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어디로부터 유래된건진 모르겠지만, 그게 공동체의 단합과 여러 가지 좋은 가치를 위해 기능할수도 있지만 약간 치사한 거거든요. 개인으로 서기 두려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일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 같은 거죠. 나 혼자 세상에 던져져 있는 상태를 두려워 하는 심리의 반작용이 아닌가 했던거죠. 저는 그런 사회학적 컨텍스트를 가지는 작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분류를 하라고 한다면 그나마 사회학적 고민들이 장난스럽게 배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관객** 저 뒤쪽에 구멍에 맞춰서 물이 떨어지는데 구멍에 맞추진 않고 떨어지는데 의도한 건지 궁금합니다.

**박지훈** 저는 이게 가장 생각없이 만든 거긴해요. 구체적인 의도는 없어요. "구멍이 맞든 안맞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건 물이 의미없게 순환하는 거. 번기의 웨이프와 물이 흐르는 구조. 그런 것들의 모양이 중요한. 의미라는 말 안 좋아해요.

**관객** 예술작품이 갖는 가장 특징이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왜 의미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나요?

**박지훈** 한글로서의 의미. 그러면은 뉘앙스가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게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의미가 어떤 순간이든 부여가 되게끔 되어 있죠. 현재 미래 과거든. 근데 그거를 제 입으로 해버리는 순간 아주 이상한 게 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항상해요.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네요.

**김인선** 직설적이고 텍스트 적으로 제목에서도 풍겨져 나오고 작업에서도 상징으로 의미가 꽤 강하게 보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박지훈** 그거를 굳이 내가 말을 해버리는 순간에 좀 뭐라 그럴가요... 멋지지 않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죠.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고전적인 한국 사람의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의 의미는 뭐예요? 라는 듣는 순간 저는 닭살이 확 돋거든요. 어떻게 내 입으로 설명을 해.. 그런 거죠.

**관객** 그 마음을 알 듯 하면서도, 현대미술 작가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작품 외에 글을 쓰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식으로 자기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표현하게끔 요구하잖아요.

**박지훈** 작품 생산의 주체가 있고, 소비하는 주체가 있고, 소비의 형태는 구매, 관람 등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리뷰 아티클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구요. 저는 유통 과정에서의 해석의 주체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작가는 그게 아닌거죠. 해석 주체는 아니죠. 그게 비평가가 되었던 컬렉터건, 단순한 감상자이건 제3의 지성들이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작가 스스로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보다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즐겨야하는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객** 작품을 디스플레이 했을 때 관객이 전시장에 와서 관객과 작업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뤄지길 원했는지 궁금하고, 그게 전체 의도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작업에 대한 치유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작품의 외관에서는 치유의 과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텍스트나 작가를 대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작품을 보면서는 작가가 이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걸 연상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각 형식적인 미적 쾌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약간 치유라는 키워드와 별개로 동떨어져 스스로 작동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객이 형식을 음미하는 것이 작가님이 전시에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넘어서 그 치유의 프로세스에 대한 간접적인 공감 체험까지를 의도하신 건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는지.

**박지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해요. 경험자로서의 관객과 작품이 처음 대면했을 때 거기에서 나의 의도, 나의 바램, 나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penetrate 해서 뚫고 지나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까진 생각 못하는 거 같아요. 작업엔 레이어가 많잖아요. 많은 레이어들이 일종의 가림막같이 위장을 하고있는 작업이 있는데, 제 작업이 그래요. 한 눈에 그것을 간파하기에는 관객이 아주 경험이 많아서 직관이 강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거는 좀 제 개인적 경험이 작품을 쉽게 빨리 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지만, 관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험을 통해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현대미술 너무 어렵다.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한 것이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는 경험을 누적해나가면 그게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신경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고만 말하는 건 문제요. 저희

도 가끔가다 음악회가서 듣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 것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순간에 뭘 좋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나오는 때가 많아죠. 그건 훈련이 필요 한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작가도 고민해야 되죠. 제가 매일 갤러리 나와서 도슨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작업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요. 물질이 많이 보이니깐요.

**관객** 제목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박지훈** 아 그래요? 제목이 사실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힌트 같은 거죠.

**관객** 작업을 보면 아가리는 떨어지고 열판에 의해 증발되고, 증발되는 그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작가님도 혹시 작업을 하실 때 처음 시작은 물이 증발하는 부분인지? 향이 바람에 빨려들어가는 실험이 재밌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철판도 용접을 하고, SOS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느낀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행위나 장면이 재밌는 것 그것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풍동 실험에 대한걸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관객에는 어떤 걸 보여줄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무엇을 담아서 보여줄까. 무엇을 담을까. 재밌는 건 이거데.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연상을 하세요?

**박지훈** 작업 프로세스 상에서 말이지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땀질을 하는 행위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인데. 이거는 달라요. 여기에는 결과값은 그냥 향이 수평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해골이 있는게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그걸 위해 동원된 기계적 수단이에요. 아가리나 향이나 제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한 서너번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업데이트 해요. 제일 마지막 결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리 생각은 못해요. 대충 짐작은 하지만요. 이거는 비교적 결과가 뻔하죠.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단순한 드로잉같이 백지에 하듯이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다른 방식의 프로세스예요. 끝까지 이게 잘될지 안될지 몰라요. 마지막 그림을 처음에 그리는 게 어려워요. 작업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잘 구상이 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제 작업 중에 세상에 소개 안된 것, 실패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할려고 한 대로 잘 안되서요. 쉬운 이야기로 예전에 한번 당구공 하나를 쳐서 마치 대포에서 발사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만들다가 안되서 실패해서 쳐박아 뒀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기계적인 것들이 개입을 해서 오랜 과정, 시행착오, 수정의 시간을 거쳐 작업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후루룩 완성되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 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판에 김인선 선생님이 여러 개 하자고 그래서 막판에 울면서 했어요. 작업들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아무래도 현대미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안해 본 것들을 해야할 때가 많아요. 늘 같은 것만 하게 되면 쉽겠죠. 물방울을 그리는 일을 50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계속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경험치가 누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이 건 광고인데 윌링앤딜링 이 개인전과 관련해서 팟캐스트 녹음하거든요. 들으실 여건이 되시면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저와 패널 한명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할 예정이에요. 작품에 관한 것과는 약간은 다른 주제로요. 현대미술 전반에 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김인선** '아트톡 윌링앤딜링'을 검색해 주시면 지금까지 전시한 작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녹음돼 있어요. 저희는 다음 주 초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